

책마을] 쓸쓸한 절터에서 발견한 ‘역사의 속살’

[경향신문 2006-03-10 23:05:55]

봄은 설렘이다. 설렘은 떨림이고 떨림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다. 그럼 어디로 떠날 것인가. 사찰은 어떨까. 남의 눈이 없는 폐사지(廢寺址)는 또 어떨까.

폐사지? 폐사지란 어디인가. 단순히 사라져버린 절의 흔적만을 의미할까. 물론 아니다. 저자는 “욕심을 하나씩 허물거나 사라지게 하는 만행의 대상이며, 본성을 되찾아가는 獨樂(독락)의 禪房(선방)이었고 無門關(무문관)”이라고 고백한다.

“모진 눈보라 속을 걸었다. 한 시간 남짓, 쌓인 눈에 허벅지까지 푹푹 빠질 무렵에야 다다른 그곳. 멀리 탐이 있었고 나는 그를 보자 그만 드러눕고 말았다. 아무도 걸지 않는 길을 걸어 그 누구도 없는 곳에 다다른 자유로움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진전사 터 중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인 이지누씨는 이처럼 지금은 잔해만 남은 폐사지 한곳 한곳을 계절을 달리해 열댓 차례씩 걸음하고 또 진중일 기다림으로 글과 사진을 담아냈다.

때로 눈보라를 헤치며, 때로 새벽 햇살에 탐이 하나씩 깨어날 때까지 가부좌를 틀고, 때로 답사객들이 지나치는 ‘역사의 속살’들을 발견한다. 그래서 우리의 귀한 것을 귀하게 지키지 못함을 반성하며 ‘누구를 탓할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전국의 폐사지는 모두 2,000군데. 그중 책 중간 글 경남 함양 장수사 터를 가보자. 일주문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곳. 문을 지나면 눈길 둘 곳 없는 당혹스러움이 고독을 불러 일으킨다. 그래서 문은 공간에서 공간으로 넘나드는 경계로 영화 ‘매트릭스’의 문과도 같다. 문 너머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지만 이제껏 머물던 세상을 잃어버리게도 하는, 그래서 낯설고 고독한 곳이라고 말한다.

1989년 구산선문 답사를 통해 시작된 저자의 십수년간 기행은 2004년에 크게 방향을 튼다. 미술사·불교사 중심의 답사에서 구도기행으로 바뀐다. 불경과 ‘노자’를 가방에 넣고 다니며 돌을 견주어 동양 사상의 근저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다.

추천의 글을 쓴 항적 스님은 “철학적 사유가 넘치는 만행”이라며 “노력 없이 백번을 일러준들 알지 못하고 눈앞에 가져다 보여준들 보지 못하는 선(禪)을, 폐사지의 ‘텅 빈 충만’의 역설을 우리에게 선사한다”고 말한다.

‘이지누의 절터 톨아보기1-강원도·경상도 편’은 마음으로 쓴 기행문이다. 빈 절터에 앉아 하루종일 자신에게 묻고 되묻고, 그래도 안되면 계절이 바뀌어서 다시 찾아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 곧 만행의 기록이다. 그것은 또 높이만 추구하는 세상에 대한 낮은 곳에서의 장엄한 울림이기도 하다.

누구나 짧은 봄 여행을 꿈꾼다. 만행까진 아니어도 좋다. 즐거움보다 울림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게다가 저자처럼 자유롭게 드러놓고 싶은 곳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2만4천원

<강기성기자 boiso@kyunghyang.com>